

# “정보 넘쳐나는 스마트폰 세상 톡톡 튀는 ‘앱’ 아이디어로 장악”



왼쪽부터 정청기·이광규·변성욱·변영일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의 후발 주자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승부하겠습니다.”

광주 동구 무등빌딩 13층 광주앱개발지원센터(이하 광주앱개발센터)에 지난달 21일 입주한 CEnA(Computer Entertainer Association·대표 변성욱), 컴퓨터 재능인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CEnA는 동강대학 출신 10년지기 동창생 변성욱(30)·이광규(31)·정청기(30)씨와 디자이너 변영일(25)씨 등 4명이 지난해 10월 만든 모바일 앱 개발전문업체다.

지난 1999년부터 CEnA라는 동호회를 만들어 IT에 대한 기술적 교류를 끊임없이

이 해오면서 이들은 각자 IT분야에서 10여년 간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후 지난 2009년 아이폰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스마트폰 열풍에 맞춰 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의기투합했다. 업무 공간은 광주 앱개발센터에서 무상으로 임대받아 초기 자본금 300만원만을 투자했다.

특히 창업 직후 지난해 말 중소기업청과 광주시가 주최한 창조기업 앱개발 경진대회에서 광산업체와 개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DB 형식의 ‘光(LED)산업 백과사전’ 앱을 만들어 입선하는 등 이미 실력을 검증받았다.

CEnA는 사업목표를 ‘모든 고객이 이용

가능한 범용 솔루션 개발’,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솔루션 제공’, ‘앱 개발 노하우와 기술 축적, 내·외부에 공개’, ‘앱 광고 등을 이용한 사용자 부담 최소화’ 등에 두고 있다. 철저하게 사용자를 위한 앱을 만든다는 것이다.

변 대표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나서 앱 개발 전문업체들이 급격히 늘어나 하루에도 수백개의 앱들이 개발되고 있다. 때문에 앱 개발업체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으로 승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CEnA만이 생각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앱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CEnA는 최근 비즈니스맨 및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정, 연락처, 메모, 개인정보 등을 통합관리해주는 앱을 개발중에 있다. 기존에 상용화된 일정관리 앱들과 달리 최근 급속하게 이용자가 늘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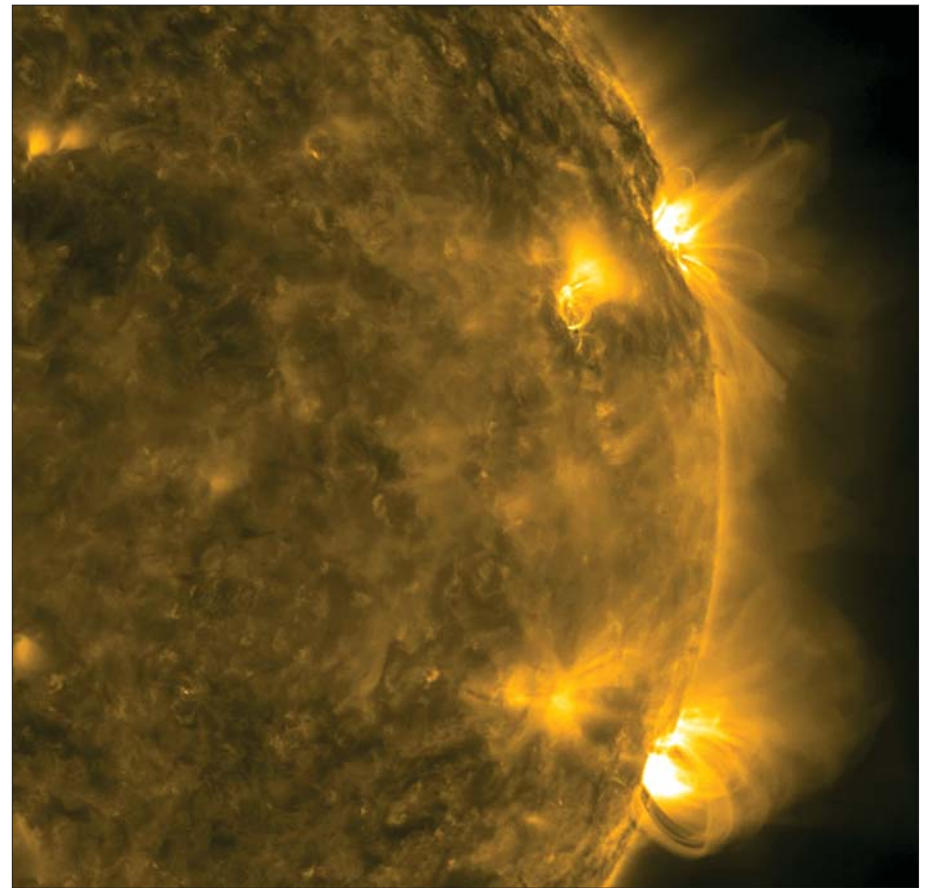
변 대표는 “기존의 일정관리 앱들이 동일한 인터페이스와 모듈로 만들어졌다면 개발 중인 앱은 사용자별 모듈을 만들어 필요에 따라 모듈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경안기자 kki@kwangju.co.kr

광주앱개발센터 입주

## CEnA

젊은피 4명이 의기투합  
10년 쌓은 IT 노하우로  
사용자를 위한 앱 개발



## 태양 흑점 폭발 에너지 단파통신·건강 악영향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태양 흑점 폭발의 영향이 군 작전과 생활, 건강 등에 미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50분께 흑점번호 1158에서 경보 3단계(주의상황)급 폭발현상이 발생한 이후 약 2시간 동안 군 작전에 이용되는 단파무선통신이 먹통이 됐고, 말레이시아 MeaSat-3위성 등에서 수신 불량에 관측됐으며 이같이 전했다.

연구소는 태양 폭발로 방출된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로 접근하면 지구를 둘러싼 지

구를 밀어내고, 인공위성이 자자기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 전자장비나 위성 TV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비행기 승객들은 X-레이를 100장 정도 찍는 것과 맞먹는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그러나 휴대전화 이용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기지국이 많은 우리나라는 태양 폭발의 영향으로 한 장소에서 무선통신 연결이 끊겨도 다른 곳의 기지국이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日, 국제우주정거장에 말하는 로봇 보낸다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우주인들이 조만간 일본에서 온 로봇 친구를 통해 집에 있는 가족들과 트위터로 교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우주인들이 자는 동안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우주인의 건강과 스트레스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구와 트위터로 교신하는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을 2013년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이번 주 발표했다.

JAXA는 이는 노인층을 위한 로봇을 개발하려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라며 로봇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노인용 로봇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AXA에 앞서 미국 우주항공국(NASA)의 로보노트2(일명 R2)가 내주 디스커버리호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할 예정이다.

250만 달러를 들여 만든 R2는 인간처럼 머리와 손, 팔 등을 지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인간형 로봇으로 우주 정거장의 연구실 유지 보수 업무를 맡게 된다.

R2 역시 트위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대개는 NASA 대변인이 보내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JAXA의 사노 씨는 일본은 이보다 좀 더 독자적인 로봇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R2에서 한 단계 나아가 우주인을 위해 말을 더 잘하는 친구를 제공하는 것이 일본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와이브로 기반 제4 이통사 탄생 임박?

### KMI 사업승인 여부 내주 판가름

와이브로 기반의 제4 이통통신사가 탄생할 수 있을지 내주 중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신사업 승인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

넷(KMI)에 대한 심사가 내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르면 25일까지 최종 선정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는 현재 심사위원단 구성을 대부분 마무리한 단계로 심사 시기는 이번 주말 전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방통위 담당부서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지만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서 관계자는 “내주 중 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MI 관계자도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에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MI는 지난해 방통위에 사업허가를 신청, 지난해 11월 ‘불허’ 판정을 받았으나 미비점을 대부분 보완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상태이며, 이번에는 사업 승인과 주

과수 할당 심사가 병합해 이뤄진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1차 심사 때 위원 중 일부가 교체돼 20명 내외로 구성되고, 승인 심사 결과 항목별 총점 60점,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다.

KMI가 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국내 최초로 와이브로 기반의 전국망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게 돼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와이브로의 탄탄한 국내 기반 마련과 이를 통한 와이브로 세계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스타벅스 24시 사우나·찜질방

땀만 빼는 찜질방은 이제 가라!

스타벅스가 광주 시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명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우나·헬스·에어로빅·요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Multi-Plex Fitness System’으로 잃었던 ‘당신의 젊음’을 되찾으세요!

| 회원가입 · 상담문의 | 062-383-7272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3-4 |  
(내비게이션에서 '스타벅스 사우나' 주소를 검색하세요)